

# 고려시대 茶碗과 茶注子에 관한 연구

- 회화 속에 나타나는 茶道具를 중심으로 -

金 富 貴

Kim Boogwi  
東亞大學校 大學院

## I. 들어가는 말

‘茶’란 ‘차’ 혹은 ‘다’라 불리진다. 그 뜻은 마실거리의 재료가 되는 찻잎과 그 잎을 물에 우려낸 찻물, 혹은 차나무의 뜻을 가지고 있어 茶라는 한 단어에 3가지의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차의 종류 및 기원, 혹은 전반적인 차문화에 대한 연구인 ‘다도학’과 실질적으로 차를 마시는 과정에 관한 제다법, 행다법 연구로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있다.<sup>52)</sup>

차를 마시기 위해서는 차를 담는 그릇, 물을 끓이기 위한 주전자, 차를 마시기 위한 차그릇이 필요하며 이런 차도구는 차문화와 그 역사적 맥이 함께 이어져왔음은 충분히 짐작 가는 바이다. 그러나 현재 현존하는 차도구는 대부분이 도자기에 속하므로 도자기에 관한 연구 중 하나로 취급되어 그 연구 성과가 차문화와 관련된 차도구가 아닌 고려시대 도자기의 단편적인 형태로서 연구되어지기도 하였다.<sup>53)</sup>

그래서인지 차완은 술잔 혹은 음식물의 용기로서의 완 등으로 용도에 의

52) 차문화사에 관한 대표적인 논문으로 鄭英善, 『한국 茶文化史』(너럭바위, 1990), 鄭相九, 『韓國 茶文化學』(부산일보사기획출판국, 1983), 橋本實 著, 박용구 譯, 『茶의 起源을 찾아서』(경북대학교출판부, 1997) 등이 있다. 또한, 제다, 행다법에 관한 논문으로는 金明培, 『茶道學』(學文社, 1998), 柳宗悅 著, 김순희 譯, 『다도와 일본의 美』(도서출판 소화, 1996), 高橋忠彦, 『唐宋を中心として 飲茶法の變遷について』(『東大東洋文化研究所紀要』 109, 1989) 등을 들 수 있다.

53) 도자기에 관한 논문으로서 차와 관련하여 언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대표적인 논문은 徐景淑의 『靑磁象嵌筒形高麗茶碗の考察 -韓國陶磁史におけるその位置付け-』(慶應義塾大學 大學院 修士學位論文, 2001)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은 일본에서 차완 중 하나의 명칭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고려차완’에 관한 연구로 기존의 설과는 달리 상감통형고려차완은 주로 일본의 주문에 의해 16~17세기의 조선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해 형태가 구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완으로만 명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차주자도 마찬가지로 술주자와 구분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고려 시대의 차도구에 관한 기록이 극히 드물며, 조선시대 후기 이후에는 우리나라 차문화의 명맥을 거의 잃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차도구는 마시는 차의 종류에 따라 그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먼저 차와 차도구의 종류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차의 기원은 언제부터인지를 중국 차문화의 성립과 함께 알아보려고 한다. 아울러 현존하는 중국 및 한국의 회화 속에 나타나는 차완과 차주자를 통해 현존하는 도자기에 그 형태를 적용시켜 고려시대의 차완과 차주자의 형태를 유추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와 같이 분류된 차완과 차주자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고려시대 차문화상을 밝혀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 차도구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한 조그마한 시도임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 II. 차와 차도구의 종류

현존하는 차의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 결국 모든 차는 카멜리아·시넨시스(Camellia sinensis)라고 하는 학명을 가지는 동백나무과의 차나무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결국 같은 나무에서 나는 잎을 그 제조방법에 의해 성분, 맛, 색, 향기 등을 달리하며 여러 종류의 차로 나뉜다. 따라서 여기선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6가지의 차 종류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보통 6대차라고 하는데 녹차(不발효차), 백차(약발효차), 황차(약후발효차), 청차(반발효차), 흑차(후발효차), 홍차(완전발효차)이다. 즉 전혀 발효되지 않는 녹차와 찻잎이 가지는 산화효소의 운동으로 발효되는 홍차, 청차, 백차의 3종류, 균을 넣어 그 균의 작용으로 발효되는 흑차, 황차의 2종류로 다시 나눌 수 있다. 그 중 녹차는 현재 한국은 물론 중국, 일본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차이다. 이런 녹차는 찻잎이 가지는 산화효소가 작용하지 못하도록 따낸 잎을 즉시 고온에서 단시간 열처리한다.<sup>54)</sup> 이후, 차를 비벼서 건조시킴으로써 녹차를 완성시킨다.

<sup>54)</sup> 이 과정을 일반적으로 殺靑이라 불리지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솥에서 볶는 방법을 이용하지만 일본에서는 찌는 방법을 이용한다. 이와 같이 같은 살청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조공정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녹차의 대표적인 차는 중국의 서호용정차, 황산모봉차, 은시옥로가 있고, 일본에서는 전차, 죽로차, 말차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졌던 차도 녹차인데, 그 생산지는 따뜻한 남부지방인 전라남도과 경상남도 임을 알 수 있다.<sup>55)</sup> 녹차는 마시는 방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찻잎을 갈아서 가루를 내어 마시는 말차와 찻잎을 그대로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마시는 전차로 나눌 수 있다.

한편, 차도구는 실제 차를 마실 때 쓰이는 도구를 말하며, 쓰이는 용도와 만들어진 재료에 따라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용도에 의해 차도구를 구별하면, 차를 마시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며 그 물을 담은 그릇을 水指 즉 물항아리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고려시대의 청자 물항아리가 현존 최고의 것이며 이는 일본 靜嘉堂 소장의 南宋의 浮牧丹太鼓胴水指<sup>56)</sup>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다음 물을 끓이기 위해 숯이나 쉰나무로 불을 피우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것이 風爐이며 찻물을 끓이기 위한 것이므로 특히 차풍로라 불려진다.

물을 끓이기 위해 차풍로 위에 올려 놓는 그릇을 湯罐이라 부른다. 신라 시대에는 石釜가 사용되었으나 고려시대부터는 石鼎, 湯鼎, 湯壺 등 다양한 이름과 형태의 탕관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탕관에서 끓인 물과 찻잎을 넣고 융합하여 차의 성분을 우려내는 그릇을 차주자라 한다. 이는 차주전자, 茶罐, 急須, 茶注, 茶瓶, 注春, 茶壺 등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차주자는 손잡이 모양에 따라 3가지로 구별되는데 일반 주전자처럼 손잡이가 동체 위에 달린 것을 上把型, 동체의 뒷부분에 고리모양으로 달린 것을 後把形, 동체의 옆에 긴 臺狀으로 달린 것을 橫把型이라 한다.

우려난 차를 담아 마시는 그릇을 茶甌 또는 차완, 찻잔이라 하는데 차완은 찻잎을 그릇에 넣고 끓인 물을 부어 휘저어 마실 때나 차주자에서 우려낸 차를 담아 마실 때 사용되는 그릇이다. 특히 茶甌는 신라시대의 지장이 중국 九華山에 있을 때 그의 제자가 쓴 시에 나타나며<sup>57)</sup> 최치원의 眞鑑禪師慧昭

55) 『신증 동국여지승람』에 나타난 차 생산지로 경상도 지역으로는 밀양도호부 산외면 엄관리, 울주군 두서면 학성, 양산군 신평부근, 산음군 지곡사, 단성군 지이산, 진해현, 하동군, 고성군 등이 있다. 또, 전라도 지역은 전주부 천룡산, 나주부 금성산, 영광현 불갑산 묘양산, 함평현 용천사, 고산사, 월량사, 무안군 변산, 능가산, 해남군 대흥사, 보성군 대원사, 광양군 다압 등지가 있다.

56) 남송의 용천요에서 제작된 높이 20.2cm의 물항아리로 큰 북같은 몸통에 모란꽃이 부조된 물항아리란 뜻으로 그 이름이 붙여졌다.

57) 清代 『茶史』에 지장의 제자 道明이 쓴 시 『送童子下山』에 “烹茗甌中罷弄花”라 하여 다구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碑文에는 ‘玉甌’라는 말이 있어 신라시대부터 사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차완을 받치는 그릇을 찻잔받침 즉 茶托, 茶托子, 茶船이라 부르며 그 형태는 원형, 타원형, 선박형 등이 있다. 찻잔받침의 기원은 唐代의 재상이었던 崔寧이 딸이 차를 마실 때 찻잔에 손가락을 대는 것을 근심하여 만들어진 것<sup>58)</sup>이라 전한다.

그 외 차도구로 찻잎을 넣어 두는 茶筒, 찻통의 차를 뜨는 찻술(차뜨개), 찻잔을 데우거나 씻어내고 버리는 물을 담는 그릇인 개수통, 차도구를 정돈하여 두거나 찻잔을 나르기 위한 쟁반인 茶盤 등이 있다.

용도별로 구분된 차도구를 다시 재료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水指는 고려 이전에 토기의 수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만 될 뿐 정확히 수지라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수지는 청자가 最古이며 이후 백자가 있다. 중국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唐代에는 나무로 된 水方이 있었다.

차풍로는 주로 초기에는 동, 철의 풍로가 사용되었으나 이후, 이 외에 토기로 만든 瓦爐, 대나무로 만든 竹爐 등으로 다양해졌고, 탕관은 자기가 대부분이지만 石釜와 같이 돌로 만들어진 것과 쇠로 만든 鑪이 있다.

차주자는 자기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구리, 주석, 은, 동으로 제작되어지기도 하여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차완 역시 청자, 백자 등의 자기를 비롯하여 토기, 은기, 유리기 등이 있으며 茶托은 도자기, 주석, 쇠, 구리, 나무, 대나무, 등나무 등으로 만들어진다.

### Ⅲ. 차문화의 성립과 전개

이상과 같이 살펴본 차와 차도구는 실제로 언제부터 사용되어 하나의 차문화로서 성립, 전개되었는가를 중국을 비롯하여 한국, 일본 각 3국의 차문화 발달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주변국가

##### 1) 중국

중국은 차에 대한 最古 기록인 육우의 『茶經』에 의하면 신농의 『食經』

<sup>58)</sup> 唐의 기록인 李匡又, 『資暇集』에 전한다.

에는 “차를 오래 마시면 힘이 솟고 마음이 즐거워진다”라는 가사가 있어 일찍이 차가 음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마천의 『史記』에는 황제 이전의 기사가 제외된 점으로 미루어 역사적 신빙성은 희박하다 할 수 있다. 또, 북송의 구양수가 지은 『集古錄』에는 “차는 전대의 역사에 보이는데 대체로 魏나라와晋나라 때부터 있었다”하여 적어도 위진남북조시대부터는 차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 미상의 宋代의 기록인 『南窗紀談』에는 “後魏의 양현지가 『낙양가람기』에서 차 마시기는 양나라 천감연간(502~519년)에 비롯되었다고 하였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여 다시 위진남북조시대의 차의 기원을 부정하는 기사를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가장 믿을 만한 것은 前漢의 宣帝(B.C.74~49년) 신작 3년(B.C.59)에 왕포라는 사람이 노비매매인 『僮約』에 새로 온 노비가 해야 할 일을 적었는데 그 중 “집에 손님이 오면 차를 달여 갖추고 무양에서 차를 사와야 한다”는 내용<sup>59)</sup>이 있다. 그러므로 결국 중국 차의 기원은 前漢부터임을 알 수 있다.

이후 삼국시대에는 『三國志』에 술을 대신하여 차를 마셨다는 기사가 있으며,<sup>60)</sup> 남북조시대에 남조의 차 마시는 풍습을 裴淵은 『南海記』에서 “西平에서 나는 고로(鞏廬)는 차씨의 별명인데 남녘 사람들이 음료로 삼는다”고 전하고 있다.<sup>61)</sup>

당나라의 陸羽는 차의 근원, 차의 법도, 차의 도구에 관하여 『茶經』3편을 지음으로써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다도가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sup>62)</sup> 송대에 이르면 차는 하나의 생산품으로 인식되어 차의 전매제도가 태조 건덕연간(963~967년)부터 시작되어 徽宗 3년(1121)까지 2차례의 폐지와 부활을 거치면서 이어졌다. 또 모든 차의 거래를 통제하여 많은 세금을 걷게 하는 채경, 다법개혁 등이 시행됨으로서 하나의 국가적인 납세법의 하나로 이용될 만큼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으로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그만큼 차의 생산과 수요가

59) 清代의 顧炎武·黃汝成이 지은 『日知錄集釋』에 “王褒의 『僮約』중 俎鬻烹茶 武陽買茶”라는 기사가 있다.

60) 『三國志』 『吳志』, 韋曜傳條에는 “손호는 향연마다 좌석의 주량은 대략 일곱 되를 한도로 삼았다. 曜는 주량이 두 되에 불과하여 손호가 처음부터 예우를 달리하여 은밀히 차를 내려서 술을 대신케 하였다”라 하였다. 金明培, 『中國의 茶道』, 明文堂, 1985, p.23.

61) 金明培, 앞의 책, p.25.

62) 육우가 760년에 『다경』을 짓고, 호주자사인 안진경(709~784년)이 773년에 『三癸亭』을 지음으로써 중국의 다도는 완전히 성립되었다. 諸岡存, 『茶經評釋』, 東京茶業組合中央會議所, 1943, p.235.

많았음을 말해 주는 것이며 이와 아울러 다양한 차의 생산에 의한 茶法의 발달과 함께 茶器의 증가는 최전성기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송대까지는 주로 말차가 유행했으나 1391년에 명의 태조는 농민들의 노동을 들어주기 위해 찻잎만을 진상하도록 하여 자연히 말차는 쇠퇴해지고 이후 煎茶로만 발달하게 되었다. 차의 전매제도와 무역은 명, 청대까지 이어져 청대에는 서양으로 중국차가 진출하게 되었음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이러한 중국 다도의 특징은 주로 문인들에 의한 다도로 자연 속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므로 따로 실내에 차를 마시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차실이 없었으며 특정한 종교와 결합되지도 않았고 차실내에서 정치 행위가 이뤄지는 일도 없었다. 다만 중국에서 차는 차와 물의 품질에 의해 그 맛이 결정된다는 인식이 강했으며 아름다운 다기의 발명과 茶를 마실 때 시를 작문하는 것으로도 그 특징을 집약할 수 있다.

## 2) 일본

일본에 차가 전래되기 시작한 것은 제1차 전래와 제2차 전래로 나눌 수 있다. 제1차 전래는 奈良시대 때 견당사로부터 전래되었다고 추정되는데 그 이유는 『日本後紀』에 弘仁6年(815) 嵯峨天皇이 近江韓崎에 行幸 중 梵釋寺에서 차를 마셨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sup>63)</sup> 이후 平安시대 초기에 귀족을 비롯하여 승려들 사이에 다도의 풍습이 널리 퍼졌다고 하는 기록들이 다수 보이고 있다.<sup>64)</sup> 그러나 이러한 다도는 당문화의 모방이었으며 9세기 말에 견당사 파견이 정지됨과 동시에 쇠퇴되었다. 이후 중국에서는 송대에 다시 말차의 음용이 유행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중국 천태산에 유학하고 있었던 榮西禪師가 鎌倉시대 초기에 臨濟禪과 함께 茶種을 일본에 가지고 와서 제2차 전래가 시작되었다. 建仁2年(1202) 京都로 돌아온 榮西는 建保2年(1214)에 병상에 있던 장군 源實朝에 영약으로서 한잔의 차를 올려 그 효과가 있었기에 이때부터 차의 풍습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그 당시 차는 각성제적인 약으로서 복용되기도 했으나 禪寺에서는 清規에 근거한 종교의례 중 하나로서 茶禮의 전개로서 행해지게 되었다.

이후 남북조시대가 되면 풍부한 이국의 정취를 가진 선종차례의 법식에

63) 『日本後紀』卷二十四 嵯峨天皇 弘仁六年四月條

「夏四月癸亥 幸近江國滋賀韓崎…梵釋寺停輿賦詩 皇太弟及群臣奉和者衆 大僧都永忠手自煎茶奉御」

64) 이와 같은 기록은 『經國集』, 『凌雲集』, 『文華秀麗集』, 『性靈集』 등에 있다.

그림을 걸거나 여러 가지 화려한 장식으로 茶禮를 꾸미고 茶會가 끝나면 酒宴으로 이어지는 茶寄습이 室町시대 전기까지 성행하게 된다. 아울러 室町시대에는 차의 재배가 각지로 퍼져 차 생산량이 증가하여 차를 음용하는 인구도 증가한다. 또, 神寺나 절의 문앞에는 茶店이 출현하기도 한다. 이후 고상하고 우아한 차도구를 가지고 정성껏 차를 만들어 풍류의 세계에서 노는 도구 중의 하나로 인식하는 소위 書院의 차로 전환되기도 한다. 이러한 풍조는 15세기 후반에 들어와 村田珠光이 작은 茶室을 만들어 오늘날의 차도의 원형을 창시하게 되기에 이르렀으며 이는 京都, 奈良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 퍼지게 되었다. 이 다도는 당시에 행해지던 차의 諸法式 즉 귀족적인 서원의 차, 서민의 차, 禪院의 茶禮 등을 모두 종합하여 각 단장점을 보완하여 만든 것이며 이는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 2. 한국

### 1) 삼국·통일신라시대

우리나라 차의 기원은 삼국시대부터 시작되었음을 여러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두 신라에 한정되어 있고, 고구려, 백제는 아직 찾을 수 없다. 다만 고구려는 벽화고분을 통해서 당시의 화려하고 높은 문화생활을 예측할 수 있어서 차의 음용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 五代(907~960년) 毛文錫의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 고분에서 출토된 차는 작고 얇은 조각의 떡차로 그 표본을 毛文錫이 직접 보았다고 한다.<sup>65)</sup> 또, 백제 성왕(523~554년)은 일본 欽明天皇 13年(552)에 불상과 번개, 경론 등을 보내어<sup>66)</sup> 일본에 최초로 불교를 전래하였는데 차가 불교 공양물로 쓰인 점을 감안한다면 백제 역시 일찍부터 차를 음용한 것을 추정할 수 있다.<sup>67)</sup>

우리나라의 기록으로서 차에 관한 기사 중 그 시기가 가장 이른 것은 『삼국유사』 권2의 가락국기조에 나타난다. 즉, 신라 문무왕(661~681년)이 661년에 수로왕은 자신의 외가의 조상이므로 가야국 종묘의 제사를 계속 지내야 된다

<sup>65)</sup> 이 기록은 毛文錫이 지은 『茶譜』의 각주에 있다. 青木正兒, 『青木正兒全集』 8卷, 1971, p.262.

<sup>66)</sup> 『日本書紀』卷 第十九 欽明天皇 十三年條  
「冬十月 百濟聖明王 遣西部姬氏 達率怒喇斯致契等 獻釋迦佛金銅像一軀 幡蓋若干 經論若干卷…」

<sup>67)</sup> 현존하는 유물인 무녕왕릉 출토 은제잔탁은 차완일 가능성이 높으나 일상용인지 공양구로서 차완인지는 아직 불명하다.

는 조서를 내림으로서 廢世級干이 그 뜻을 받들어 “매년 명절마다 술과 단술을 만들고 떡, 밥, 차, 과자 따위의 많은 재물로써 제사를 지냈다”라 하여<sup>68)</sup> 종묘제사 때 올리는 재물 중에 차가 포함됨을 알 수 있다. 또 『삼국사기』에 의하면 “당에서 차나무 종자를 가지고 왔으므로 흥덕왕(826~836년)이 지리산에 심게 하였다. 차는 선덕왕(632~647년)때부터 있었는데 이 때에 와서 매우 유행하였다”<sup>69)</sup>라 하여 차는 선덕왕때부터 있었음과 함께 당에서 수입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삼국유사의 기록인 가락국기조에는 허왕후가 48년 7월에 가야에 시집 올 때 난초로 만든 음료와 혜초 술을 수행원에게 주었다고 한다.<sup>70)</sup> 이때의 난초로 만든 음료는 ‘차’임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데 이능회는 그의 저서인 『조선불교통사』에서 “옛부터 백월산에 죽로차가 있는데 세상에서는 수로왕비인 허씨가 인도에서 가져온 차씨라고 전하다”<sup>71)</sup>라 하여 ‘죽로차’임을 단정 짓고 있다.<sup>72)</sup> 그러므로 차는 선덕왕 이전에도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보다 보편적으로 보급된 시기가 선덕왕 때이므로 이와 같은 기록이 전해졌다고 생각된다. 이는 원효대사와 사포와의 이야기에도 추정할 수 있다. 즉,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원효방에 원효가 머물렀으므로 사포가 또한 와서 도시면서 曉公에게 차를 달여 드리고자 했지만 샘물이 없어 곤란했다. 갑자기 바위틈에서 이 샘물이 솟아났는데 매우 달아 젓과 같았다. 늘 이 물로써 차를 달였다고 한다”<sup>73)</sup>라는 내용이 있다. 여기의 사포는 삼국유사의 사복설화<sup>74)</sup>의 주인공과 같은 인물이고,<sup>75)</sup> 원효가 원효방에 머물렀던 것은 고구려 승려인 보덕에게 方等教를 배우기 위함<sup>76)</sup>이므로 선덕여왕 이후의 일이다.<sup>77)</sup> 그러므로 우리나라

68) 『三國遺事』卷二 第二 紀異 駕洛國記條

『泊新羅第三十王法敏龍湖元年辛酉三月日 有制曰 … 王之十七代孫廢世級干 祇稟朝旨 主掌厥田 每歲時釀醴 設以餅飯茶菓庶羞等奠 年年不墜…』

69) 『三國史記』卷第十 新羅本紀 第十 興德王條

『冬十二月 … 入唐廻使大廉 持茶種子來 王使植地理山 茶自善德王時有之 至於此盛焉』

70) 『三國遺事』卷二 第二 紀異 駕洛國記條

『上命有司 引賸臣夫妻曰 人各以一房安置 已下臧獲各一房五六人安置 給之以蘭液蕙醕…』

71) 『朝鮮佛教通史』長遊和尚條 『金海白月山有竹露茶世傳首露王妃許氏 自印度持茶之茶種…』

72) 이와 같이 후세에 죽로차로 전해졌다고는 하나 삼국유사에서 ‘차’가 아니라 굳이 ‘蘭液(난초로 만든 음료)’로 표현한 점에 대해선 재고의 여지는 있다.

73) 李奎報, 『南行月日記』, 『東國李相國集』卷二十三

『(元曉房) 傍有一庵 俗語所云 蛇包聖人所昔住也 以元曉來居 故蛇包亦來侍 欲試茶進曉公 病無泉水 此水從巖罅忽湧出 味極甘如乳 因嘗點茶也』

74) 『三國遺事』卷四 第五 義解 蛇福不言條

75) ‘蛇包’의 ‘包’는 ‘福’과 같은 음으로 쓰이고 있었음은 언어학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蛇包’와 ‘蛇福’은 동일인임을 확실하다. 金相鉉, 『新羅華嚴思想史研究』, 民族社, 1991, p.165.

76) 고구려 보덕이 完山州의 孤大山으로 옮긴 이후 원효와 의상은 이곳에 와서 『열반경』, 『유마

라의 차의 기원은 앞서 본 문무왕부터는 이미 있었고, 보다 성행된 것은 선덕왕 이후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후, 설총이 신문왕(681~692년)에게 한 花王에 대한 이야기 안에 “차와 술로 심신을 맑게 해야 한다”<sup>78)</sup>라는 구절이 있어 술과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차를 음용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불교에서는 공양품으로서 차가 이용되어졌다. 즉, 신문왕 때 보길도와 효명대자가 출가하여 차를 달여 1만 진신의 문수보살에게 공양했다는 기사<sup>79)</sup>등과 충담사가 매년 3월 3일과 9월 9일에 차를 다려 미륵세존에게 공양했다는 삼국유사의 기사<sup>80)</sup> 등에서 확인된다.

이 밖에 차는 현상되기도 하였는데, 경덕왕(742~765년)이 도술가를 지은 월명사에게 품차와 수정 염주를 준 일<sup>81)</sup>과 헌안왕(857~861년)이 재상일 때 위흔<sup>82)</sup>과 함께 제사의 예를 행하며 향과 차를 예물로 매달 사찰에 보내어 한달이라도 빠뜨리지 않았던 일,<sup>83)</sup> 헌안왕이 왕명으로 장사현 부수 김언경을 파견하여 차와 약을 보내고 보조선사(804~880년)를 맞이했던 일<sup>84)</sup>과 역시 왕이 圓朗禪師에게 綸音을 내리고 은혜를 베풀어 차를 보냈던 일<sup>85)</sup> 등을 들 수 있다. 이외, 최치원은 당 유학시절 선물로 차와 약을 짐으로 부친 일<sup>86)</sup>이 있어 차의 현

경』 등 方等教를 보덕으로부터 배웠다. 이와 같은 사실은 『大覺國師文集』卷十七 『孤大山景福寺飛來方丈禮普德聖師影』라는 詩에 ‘涅槃方等教 傳授自吾師 云云’의 구절로 알 수 있다. 김상현, 앞의 책, p.162.

77) 普德이 完山州로 옮겨간 때를 『三國史記』(권22, 고구려본기10, 寶臧王條)에는 650년 6월이라 했는데 이규보는 최치원이 지은 『普德傳』을 참고하여 667년 3월 3일이라 했고, 일연도 이 설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확히 연대를 알 수 없지만 632~647년의 재위기간이었던 선덕왕대 이후의 일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78) 『三國史記』卷第四十六 列傳 第六 薛聰條  
『… 膏粱以充腸 茶酒以精神 巾衍儲藏 須有良藥以補氣 惡石以鑄毒』

79) 『三國遺事』卷三 第四 塔像 溟州古河西府也五臺山寶叱徒太子傳記條  
『… 兩太子並禮拜 每日早朝 汲于洞水 煎茶供養一萬真身文殊』

80) 『三國遺事』卷二 第二 紀異 景德王忠談師表訓大德條  
『… 王喜見之 邀致樓上 視其筒中 盛茶具已 曰 汝爲誰耶 僧曰 忠談 曰 何所歸來 僧曰 僧每重三重九之日 烹茶饗南山三花嶺彌勒世尊 今茲既獻而還矣 王曰 寡人亦一甌茶有分乎 僧乃煎茶獻之 茶之氣味異常 甌中異香郁烈 …』

81) 『三國遺事』卷五 第七 感通 月明師兜率歌條  
『… 王嘉之 賜品茶一襲 水精念珠百八筒』

82) 文聖王의 妃인 炤明王后의 아버지로 侍中을 지냈다.

83) 『聖住寺朗慧和尚塔碑』(韓國古代社會研究所, 앞의 책, 1999) 『時憲安大王 與檀越季舒發韓魏 听 爲南北宰相 各居其官猶左右相 遙展攝齋禮 贊以茗醇 使無虛月』

84) 『寶林寺普照禪師塔碑』(韓國古代社會研究所, 앞의 책, 1999) 『憲安大王即 位之後年也 …夏六月 教遣長沙縣副守 金彥卿 齎茶藥迎之』

85) 『月光寺圓朗禪師塔碑』(韓國古代社會研究所, 앞의 책, 1999) 『又一年 再廻 天降 重降 綸音 追錫恩波 遐宣 眷渥 茶△△△△△來 世論爲榮 禪門增耀』

상은 왕실, 귀족만이 아니라 이후 일반인들 사이에도 행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차는 삼국시대부터 이미 있었고, 일상생활에서의 접대, 음용만이 아니라 불교에서의 차공양도 행해져 주목된다. 이와 같은 차



(그림107) 토기묵서문완

의 사용은 안압지 출토의 ‘茶’라는 목서가 쓰여진 차완과 경주 창림사지 출토의 ‘茶淵院’이라는 명문이 있는 기와 등과 같이 실제의 현존 유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특히, 안압지 출토의 차완은 높이 6.7cm, 구경 16.8cm이고, 직립구연의 원저로 전차보다는 말차용의 차완으로 추측된다.(그림 1)



(그림108) 동탁은잔

한편, 고구려의 차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전차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백제 또한 무녕왕릉 출토의 은제 잔탁(그림 2)을 미루어 전차가 음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바꾸어 말하면 삼국시대부터 이미 말차, 전차 등 다양한 차가 애용되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 2) 고려시대

통일신라시대부터 제례의식, 불교공양, 헌상 등에서 사용되었던 차는 고려 시대에 더욱 융성해져서 우리나라 차 문화의 가장 전성기를 이룬다. 우선 헌상 또는 하사품으로 사용된 예를 보면 성종 9년(990)에 각 신하의 품관에 따라 차의 근수를 달리하여 하사하였으며,<sup>867)</sup> 목종 12년(1009)에는 민간인 남녀 80세 이상인 자와 큰 병에 걸린 사람 635명을 모아 차와 약 등을 하사하기도 하였다. 이 외 초상시에도 왕이 신하에게 술대신 차를 내린 기사가 보이는데, 한언공의 부고를 받고 왕이 부의로 차 2백각을 내린 일<sup>868)</sup>과 서희가 57세의 나이로 죽었을 때 왕이 몹시 애로하고 뇌원차 2백각과 대차 10근을 내린 일 등을 『고려사』를 통해 알 수 있다.<sup>869)</sup> 정종 4년(949)에는 거란에 토산단차와 뇌원차를 예

<sup>867)</sup> 崔致遠, 『桂苑筆耕集』卷十八, p.9.

<sup>877)</sup> 『高麗史』三卷, 世家 第三, 成宗九年十月條

<sup>887)</sup> 『高麗史』九十三卷, 列傳 第六, 韓人公諱

<sup>897)</sup> 『高麗史』九十三卷, 東西 第七, 서희전

물로 보냈고, 송나라에서는 고려사신들에게 중국의 납차<sup>90)</sup>와 중국항실에서 쓰던 용봉사단차<sup>91)</sup>를 보내기도 하였다.<sup>92)</sup> 또, 송에 조공하러 갔던 고려의 사신이 직접 계피와 향, 황제가 준 술, 용봉차, 진귀한 다과와 그릇을 가지고 돌아오기도 하였다.<sup>93)</sup>

한편, 고려에 온 송의 사신은 자신이 묵고 있는 숙소로 고려 관리인을 초청하여 자기가 송으로부터 직접 가지고 온 그릇은 물론 진귀한 차 등을 주기도 하였는데<sup>94)</sup> 이렇게 외국사신이 묵는 숙소에는 특히 “기물과 그릇 종류는 하나도 갖춰지지 않은 것이 없다”<sup>95)</sup>고 한 서공의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고려의 그릇 종류와 형태는 중국과 거의 같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팔관회 때는 왕과 태자 이하 신하들이 절을 한 후, 다 같이 차를 마시는 순서가 있으며,<sup>96)</sup> 연등회의 大會日 때도 역시 왕에게 차를 올리거나 신하들에게 차를 하사하기도 하였다.<sup>97)</sup>

고려 성종 때 최승로가 올린 상소문에 “왕께서 공덕재를 올리기 위해 손수 차를 갈거나 보리를 빻는다 하옵는데 성체에 지나친 무리가 되니 신은 안타깝습니다”<sup>98)</sup>라 하여 고려시대에 와서는 왕이 직접 차를 갈 만큼 불교에서의 차공양은 중요한 의식 중의 하나였음을 추정할 수 있으며 차를 간다고 하였으므로 이때는 말차가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의 사용은 고려시대에 茶房, 茶軍士, 茶院을 설치하여 보다 조직적으로 차에 관한 수요, 공급을 행했음을 알 수 있다. 다방은 문종 원년(1047)에 설치되어 조정이나 궁중의 여러 행사에서 차를 준비하고, 의례를 진

90) 蠟茶는 중국 복건성 소무현 서남쪽 지역에서 수확되는 차로써 항주, 소흥이 있는 절강성 지역에서도 생산된다.

91) 龍鳳茶라 불리기도 하며 북송 황제가 내린 차의 이름이다. 용과 봉황의 문양을 넣어 찍어낸 덩어리 차로 차 중에서 최상품의 차이다. 주로 중국의 남방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92)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卷三十二 器皿三 茶俎條

「土產茶味苦澁 不可入口惟貴 中國臘茶并龍鳳賜團 自錫賚之外商賈 亦通販故邇來頗喜飲茶」

93)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卷六 宮殿二 延英殿閣條

「朝進貢使資諒齋 桂香御酒龍鳳茗團珍果寶皿來歸」

94)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卷二十六 燕禮 館會條

「御府所給四筵列寶琬古器法書名畫異香奇茗瑰璋萬狀精采奪目麗人莫不驚嘆酒闌隨所好恣其所欲取而予之」

95)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卷二十七 館舍 順天館條

「器皿無一不備」

96) 『高麗史』六十九卷 志 第二十三 禮十一 仲冬八關會儀

97) 『高麗史』六十九卷 志 第二十三 禮十一 上元燃燈會儀

98) 徐居正, 『東文選』五十二卷 奏議 上時務書

행하는 관청을 말하며, 다군사는 다방에 소속되어 차를 올리거나 준비하는 일에茶具와 짐을 나르는 군인을 일컫는다. 院은 원래 왕을 비롯하여 관원, 귀족 등이 여행 중 쉬어 가는 국영여관인데 특히 좋은 샘물과 차가 유명한 원을 다원이라 부른다. 『동국여지승람』이나 『세종실록』의 지리지에 의하면 고려의 다원 중 경북의 茶方院, 경남의 茶見院, 황해의 茶井院, 충남의 茶亭院 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3) 조선시대

조선시대의 차 문화는 고려시대보다는 쇠퇴하여 왕실에서의 다도보다는 선비들의 다도생활이 주를 이루며 꾸준히 명맥이 이어졌다. 그러나 궁중제사에서는 여전히 차가 올려졌으며 세종 때는 명나라 사신에게 차 3말을 하사하기도 하였고, 白磁羚羊茶鍾과 白磁把茶瓶을 수입하기도 하였다.<sup>99)</sup>

그런데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차 문화는 급격히 쇠퇴했으며 차의 품질도 떨어졌다. 그러나 말기에는 실학과 함께 중흥되어 草衣禪師의 『東茶頌』과 정약용의 『東茶記』와 『茶務』, 김정희의 茶詩 『惠山啜茗』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어 조선시대에는 저명한 차에 관한 저서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 IV. 회화 속에 나타나는 차도구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차도구, 특히 차완과 차주자는 주로 도자기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며 이런 자기들은 정확히 차완, 차주자로 지칭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고려도경에 의하면 “고려사람들도 차마시는 것을 좋아하여 차 끓이는 용기를 만든다. 금화오잔, 비색소구,<sup>100)</sup> 은로탕정<sup>101)</sup> 등은 모두 중국의 모양과 규격을 흉내낸 것들이다”<sup>102)</sup>라 하여 고려시대에는 차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차도구를 직접 만든 것을 알 수 있으며 모양은 중국의 것을 흉내낸 점이 주목된다.<sup>103)</sup> 이 외에 서궁은 “주발, 접시, 술잔, 사발,

99) 李鉉淳, 『對明貿易』, 『韓國史論』11권, 1982, p.283.

100) 비취색깔을 낸 자기로 만든 작은 차그릇을 일컫는다.

101) 은으로 만든 화로와 찻물을 끓이는 세발술을 말한다.

102)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卷三十二 器皿三 茶俎條

『故邇來頗喜飲茶益治茶具 金花烏蓋翡色小甌銀爐湯鼎皆竊效中國制』

103) 앞 주 44) 참조.

꽃병, 탕기, 옥술잔도 만들 수 있었으나 모두 중국의 일정한 그릇 만드는 제도를 모방한 것들이다.<sup>104)</sup>라 하고 있어 고려시대에 사용된 그릇은 차도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용기가 중국의 것을 모방하고 그 수준도 거의 비슷함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의 여러 회화 속에 나타나는 차도구의 종류 및 형태를 파악하고, 아울러 한국 회화 속에 나타나는 차도구의 형태를 살펴서 이를 바탕으로 현존하는 고려시대 차도구 즉 도자기의 차완, 차주자의 형태를 유추, 검토해 보기로 한다.

### 1. 중국

중국의 현존하는 회화 중 시기가 이른 것은 고분벽화가 대부분이다. 특히, 요대(907~1125년)의 선화묘군<sup>105)</sup>의 벽화에서 다수의 차도구와 관련된 회화를 볼 수 있다. 이들 고분들은 정확한 매장연대를 알 수 있으며 특히 요대 만기의 한인인 장씨와 한씨의 가족묘로서 당시의 귀족상을 볼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벽화라 할 수 있다.<sup>106)</sup> 여기의 벽화는 1093년의 張匡正墓壁畫와 張文藻墓壁畫를 필두로, 1111년의 韓師淵墓, 1116년의 張世卿墓, 1117년의 張世古墓와 張恭透墓에서 각각 차를 준비하는 모습의 벽화를 볼 수 있다. 시기가 이른 장광정묘벽화에서는 시동이 차풍로를 불고 있으며 그 위에 목이 길고 주구가 짧은 주전자가 있고, 특히 탁자 위에는 동체부에 음각의 선을 중으로 그어 참외형의 주전자가 보인다(그림 3). 그 옆편에는 차잎을 다연에서 갈고 있는 시동이 있고, 그 뒤로 시녀 2명이 각기 구연부가 넓게 퍼진 차완을 큰 잔받침에 받쳐 들고 있다. 차잎을 갈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말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말차용 차완으로서 그 형태는 구연부가 외반하여 넓게 퍼지고 비교적 높이가 높은 차완인데 그 저부의 형태는



(그림 109) 張匡正墓壁畫의 차주자



(그림 110) 張匡正墓壁畫의 차완

104) 徐兢『宣和奉使高麗圖經』卷三十二 器皿三 陶尊條

「復能作罍椌柶甌花瓶湯棗皆竊倣定器制度故略而不圖」

105) 현재 중국 河北省 張家口市 宣化區에 소재한다.

106) 河北省文物研究所編, 『宣化遼墓壁畫』, 文物出版社, 2001, p.7.

여기서는 알 수 없다.(그림 4) 그러나 앞서 본 (그림 3)에서 오른쪽에 있는 탁자 위에 저부가 구연부보다 극히 좁으며 그 굽이 비교적 높은 차완을 얹어 놓아 당시 사용된 차완의 저부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림11) 張文藻墓壁畫

같은 시기의 장문조묘벽화에서도 역시 차를 준비하는 하인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림 표현상으로는 앞의 장광필묘벽화보다는 그 표현과 색채감이 떨어진다. 그러나 얹어놓은 말차용 차완의 형태는 거의 같으며 단지 차주자는 받침에 받쳐져 있으며 참외형의 문양 대신 2조의 횡선이 표현되어 있다.(그림 5)

한사천묘벽화는 가장 상태가 좋지 않아 구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기 어려운 편인데 앞서 본 차완과는 달리 저부가 비교적 넓으며 차받침도 쟁반과 같아 각

부가 보이지 않는 것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비해 장세경묘벽화의 차



(그림6) 張世卿墓壁畫

완은 넓게 외반하는 구연에 각부가 달린 차받침에 놓여 있고, 차주자는 주구가 비교적 길고 동체부는 상대적으로 짧으면서 직경이 넓은 형태의 것이다.(그림 6) 차수저로 찻가루를 넣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역시 말차의 준비임을 알 수 있다.

같은 시기인 1117년의 장세고묘벽화에서는 앞서 본 것 달리 차완의 구연부는 외반하지 않은채 넓게 퍼져 있고 저부는 더욱 좁다. 차주자는 장광정묘의 것과 그 형태가 비슷하나 전체 길이가 짧고, 縱線이 경부까지 이어져 있으며 주구가 길게 뻗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그림 7) 장공투묘벽화의 차완 역시 구연이 외반하지 않은 점, 저부가 극히 좁은 점은 장세고묘의 것과 같으나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아졌으며 특히, 차주자는 다시 주구가 짧으며 2조의 횡선만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장세고묘의 차주자와 마찬가지로 전체 높이가 짧고, 동체부가 넓어진 것은 앞의 11세기와 다른 점이라



(그림7) 張世古墓壁畫

할 수 있다.(그림 8)

한편, 회화에서는 어떤 차도구가 있는지 살펴보면, 현존하는 최고의 喫茶의 회화는 대만 고궁박물관에 있는 蕭翼賺蘭亭圖卷 中 1권에 있는 그림으



(그림8) 張恭透墓壁畫

로 북송시대인 11세기에 그려진 작품이다.(그림 9) 그림의 오른쪽에 차 접대를 준비하는 시동의 모습과 차 도구가 보인다. 여기서 보이는 차도구는 차완과 받침, 찻통과 차를 가는 도구



(그림115) 蕭翼賺蘭亭圖卷

구, 몸체가 긴 삼족정에 담긴 찻물 등이다. 차완은 구연부가 밖으로 퍼져 있으며 크기가 크며 특히 차를 가는 도구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말

차용의 완임을 추정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일본 개인 소장인 남송(12~13세기) 시대의 나한도에서 볼 수 있는데 승려 한 명과 시동 3명이 그려져 있다(그림 10).



(그림10) 羅漢圖



(그림11) 羅漢圖 부분 차주자

여기에서 보이는 諸도구

는 南宋度宗의 咸淳 5年(1269)에 간행된 『茶具圖贊』에 보이는 고식의 도구와 일치하고 있어 자료로서의 신빙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화로 위에는 銀器로 추정되는 목과 주구가 긴 차주자가 보이는데 주구는 주자의 몸통이 시작되는 부분 즉 어깨에서부터 뺀어 나와 있다.(그림 11) 또 구연부가 넓게 퍼진 큰 차완과 받침을 볼 수 있으며 쇠로 추정되는 솥에 차를 가는 모습이 보여 역시 말차를 위한 차완과 차주자임을 알 수 있다.



(그림12) 羅漢圖 부분 차완

(그림 12) 12세기 북송시대의 徽宗이 그린 文會圖(그림 13)에서도 차도구가 보이는데 그림 앞쪽의 5명의 侍者가 차를 준비하는 모습이 있다. 여기서도 구연부가 넓고 바닥이 좁은 차완과 받침,(그림 10)의



(그림119) 文會圖

나한도에서의 차주자보다는 몸통이 넓은 편이나 역시 목이 길고 주구가 몸통의 어깨로부터 길게 뺀어나간 차주자가 보인다. 이러한 차주자는 남송 즉 淳

熙 2~4年(1175~1177)의 周季常과 林庭珪 등이 그린 오백나한도(그림 14)와 남송시대의 錢選이 그렸다고 전해지는 品茶圖에서도 볼 수 있으나<sup>107)</sup> 여기서의 앞과 달리 구연부가 넓게 퍼진 것이 특징이다.



(그림 120) 五百羅漢圖

이상과 같은 그림을 통해서 북송에서 남송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전차보다 말차가 성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말차용의 차완은 구연부가 넓고 바닥이 좁은 비교적 큰 완이며, 아울러 차주자는 목과 주구가 길며 특히 주구는 주자의 동체부 어깨에서 뺀어 나간 형태가 특징이다.



(그림 15) 唐十八學士圖

다음은 원에서 명시대에 걸친 회화를 살펴보면 현재 대만 고궁박물관소장의 14~15세기작으로 추정되는 唐十八學士圖(그림 15)에서 화면 중앙 아래에

侍者 2명이 각기 차완과 차주자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여기서의 차완은 앞서 본 송대의 차완과 크게 다른 점은 없지만 차주자에서 차를 따르는 장면으로 미루어 말차용의 차완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보통 차완은 차받침과 함께 표현되어 차완의 바닥형태를 잘 알 수 없으나 1336년의



(그림 16) 道童圖

묘지명이 있는 산서성 대동시에서 발견된 馮道眞王青墓의 동벽에 있는 道童圖(그림 16)에서 차완의 바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그림은 시동이 차받침 위에 차완을 올려 쥐고 있고, 그 옆의 탁자 위에 3개의 차완이 얹어져 있는데 차완의 바닥은 좁고 낮은 굽을 이루고 있는 것이 보인다. 唐十



(그림 17) 陸羽烹茶圖 部分

八學士圖의 차주자는 송대와 달리 목은 짧으며 구연부가 넓고 주구는 몸통의 가운데에서부터 뺀어 나와 선단이 굴곡을 이루는 형태이다. 이는 아마 찻잎이 물속에서 넓게 퍼져 깊은 맛을 내기 위한 기능성을 생각하여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구연부가 넓은 차주자는 元末에

<sup>107)</sup> 같은 형태의 차주자는 하남성 偃師의 宋墓에서 출토된 畫像塼에서도 볼 수 있는데 차주자가 붉게 달궈진 석탄 위에 올려져 있다.

서 明初인 14세기에 활약한 趙原이 그린 陸羽烹茶圖에서도 볼 수 있다. 주구는 가옥의 기둥에 가려져 볼 수 없지만 구연부가 넓은 주자가 화로 위에 얹혀져 있는 모습이다.(그림 17) 같은 명시대(14~15세기)의 盧仝烹茶圖(그림 18)에선 차주자만 2구가 있어 그림 중의 차도구 구성의 현실성이 약간 떨어진다. 그러나 앞에 있는 차주자는 역시 구연부가 넓고 주구가 몸통으로 뺀어나와 있으며 동체가 둥글다. 손잡이는 이때까지 본 것과는 달리 동체 옆에 붙은 것이 아니라 동체의 양어깨에 걸쳐져 위로 손잡



(그림 19)  
盧仝烹茶圖 부분

이가 나온 형태이다.(그림 19) 이런 손잡이의 차주자는 같은 명의 王問이 그린 煮茶圖卷에서도 보인다.(그림 20) 동체가 원형이며 높이가 낮은 주자는 15~16세기작으로 추정되는 仇英의 東林圖(그림 21)에서도 볼 수 있다. 시동 2명이 차를 준비하는 모습인데 화로 위에 주구가 짧으며 몸통이 둥근 차주자가 있고, 상 위에는 2개의 차완과 차가 들어 있는 용기, 수저, 물통이 있다. 여기의 차완은 송대의 차완과 크게 다를 바가 없으나 송대의 차완이 말차용임에 비해 이 차완은 그 크기가 작은 것으로 미루어 煎茶用의 차완임을 추정할 수 있다.(그림 22)



(그림 126) 煮茶圖卷

17세기때 활약한 陳洪綬가 그린 隱居十六觀 중 한 장면에 차를 마시는 高士가 보인다.(그림 23) 선비의 왼편에는 화로 위에 찻물을 끓이기 위해 긴 자루가 달린 솥이 있으며 선비는 오른손에 차완을 쥐고 있고 왼손은 차를 우려내기 위한 차주전자 뚜껑 위에 올려져 있다.



(그림 127) 東林圖

여기에 보이는 차완은 이때까지 보아 온 차완과는 달리 구연부가 넓게 퍼져지 않으며 동체도 좁아 전체적으로 그 크기가 작고 받침이 없다. 차주전자도 둥근 형태의 몸통이 아니라 바닥이 제일 넓은 안정감이 있는 형태를 이루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역시 말차용이 아니라 차주전자에 차를 넣어 직접 우려내서 먹는



(그림 129) 隱居十六觀 중 講泉

전차용의 차완은 구연 부가 좁아지며 동체가 작아 현재 쓰이고 있는 차완과 유사한 형태로 변화된 것을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러한 전자용의 차도구는



(그림 128) 東林圖 부분

같은 明代(15~16세기) 그림으로 현재 미국 미시건대학부속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周臣의 品茶圖에서도 볼 수 있다.(그림 24) 화면 중앙 하단에 차도구가 놓여져 있는데 차완과 차주자는 모두 전자용이나 신기하게 차를 가는 도구가 있어 화가가 다도에 대해 인식이 부족하거나 말차를 먹기 위한 준비임에도 불구하고 명대에는 이미 전자용의 차도구가 주류를 이뤄 차완과 차주자가 전자용으로 나타났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그림 25) 그렇다면 이는 그만큼 명대의 차완과 차주자의 모습을 확연히 보여주는 중요한 그림이라 할 수 있으며, 여기서 보이는 차완과 차주자는 명대의 것을 대표해 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차완의 형태는 구연부가 좁으며 아울러 동체도 좁고, 작다. 차주자 역시 송대 것보다 작고 특히 짧은 주구가 동체의 중간에서 뺀어 나오고, 높이가 낮고 둥근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그림 130) 品茶圖

같은 형태의 차완은 같은 明代의 그림으로 미국 후리어미술관에 소장 중인 姜隱작의 貨郎圖와 작자미상의 挑耳圖에서도 볼 수 있다.(그림 26) 특히 挑耳圖의 차완은 연잎 모양의 뚜껑으로 받쳐



(그림 25) 品茶圖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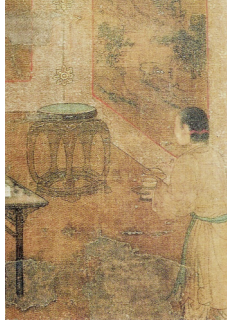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은으로 만든 연잎 모양으로 만든 연잎 모양이 겹쳐져 앞에 내놓은 차완으로 상징된다.(그



士達이 그린 坐聽松 전체 높이가 낮으며(그림 27) 挑耳圖 부분

데 이는 고려도경의 “차를 끓여서 양의 뚜껑으로 덮어 가지고 천천히 끓인다.”<sup>108)</sup>라는 기사와 같은 형태의 그림 27) 차주자는 明末에 활약한 李風圖에서도 보인다.(그림 28) 역시 대신 동체부가 넓게 퍼진 형태로

108)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卷三十二 器皿三 茶俎條  
「度凡宴則烹於廷中覆以銀荷徐步而進」



(그림26) 挑耳圖

이는 시기가 떨어지는 19세기의 청대 그림이나 棚頭閑話圖에서도 화면 중심 탁자 위에 명대와 유사한 차완과 차주자를 볼 수 있다. 이는 명대의 차완과 차주자가 청대를 거쳐 현대까지도 이어지는 것을 단편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28) 坐聽松風圖

## KC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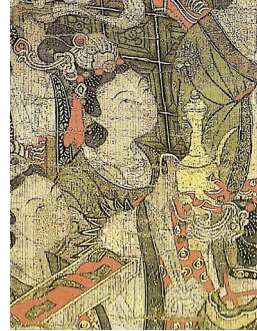
### 2. 한국

한국의 회화자료 속에 보이는 차도구는 신라시대 작품은 전혀 없다. 그리고 고려시대 것으로는 회화 1점과 고분 벽화 1점, 불화 3점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의 주제인 고려시대의 차완과 차주자는 그 형태를 구체적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다행히 조선시대 회화에서는 사례를 볼 수 있어 주로 조선시대 회화를 중심으로 고려시대의 것을 역추정하고자 하며, 아울러 앞서 살펴 본 중국 회화의 차도구를 참고하고자 한다.

고려시대 불화에서는 일본 親王院 소장인 1350년작 미륵하생변상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화면 오른쪽 貴人이 주자를 들고 있는 것이 보인다.(그림 29) 이 주자는 차주자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앞서 본 중국의 차주자와 형태가 유사한 점과 불교에서 차공양이 행해진 점 등으로 미루어 차주자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이 차주자는 금속기로 제작된 듯하며 가늘고 긴 주구가 목 중간부위까지 뺀어 나가 그 끝이 밖으로 외반하고 동체부에 비해 목이 길며 전체적으로 차주자의 높이가 높은 편이다.(그림 30) 역시 14세기 작으로 추정되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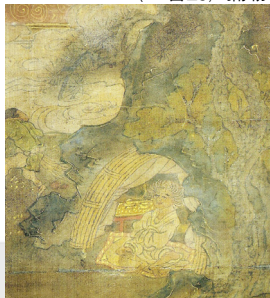


(그림29) 彌勒下生經變相圖



(그림30)

彌勒下生經變相圖 부분  
본 知恩院 소장의 미  
특하생변상도에서도  
차완을 볼 수 있다. 즉,  
그림 맨 아래의 왼편  
에 있는 長者는 상 위  
에 차완을 올려놓고  
차공양을 하고 있는데



(그림137)  
彌勒下生經變相圖



(그림138) 彌勒下生經變相圖  
부분



(그림139) 千手千眼觀音圖



(그림140) 朴翊墓壁畫

(그림 31) 여기의 차완은 각부가 높은 차받침 위에  
놓여 있고 구연은 직립하나 그다지 넓지 않다.(그  
림 32) 14세기작으로 추정되는 호암미술관 소장의  
천수천안관음도에서 화려한 문양의 주자가 있어  
주목된다.(그림 33) 이 주자는 동체부 전체에 종선  
이 시문되어 참외문양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주구 부분은 나선형의 선이 보인다. 또, 손잡이는

뚜껑부분에서 물결과 같이 한번의 곡선주름을 이루고  
나서 동체부에 연결되어 있다. 이 주자 역시 차주자로  
추정되나 관음보살이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장식성이 가미된 비실용적으로 표현하였다고 생각된다.

이 외 회화는 아니지만 최근 발굴한 박익의 고분벽  
화에서도 차완을 볼 수 있다.<sup>109)</sup> 박익은 고려말 조선초에  
활동한 인물<sup>110)</sup>이므로 고분벽화에 그려진 차완은 고려말

<sup>109)</sup> 박익의 고분은 2000년 10월부터 11월까지 동아대학교박물관에 의해 발굴되었다. 심봉근, 『  
密陽古法里壁畫墓』, 동아대학교박물관, 2002.

의 것임을 알 수 있고, 차도구를 들고 행렬하는 모습을 통해 고려 후기 귀족 사회에서의 차문화 성행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 보이는 차완은 구연부가 넓은 차완이 아니라 구연부가 좁고 약간 반전되었고, 동체는 둥글고 바닥이 좁은 작은 완이 북서쪽 장벽 중 중간지점에서 볼 수 있다.<sup>110)</sup> 그 형태로 미루어 이 완은 말차용이 아니라 전차용임을 추정할 수 있다.(그림 34)

현존하는 차도구가 보이는 회화 중 最古의 작품은 공민왕이 그렸다고 추정되는 圍碁圖이다.(그림 35) 바둑을 두고 있는 高士들의 한쪽에 시동이 연화문양이 있는 뚜껑을 덮은 차완을 들고 오는 장면이 보인다. 여기의 차완은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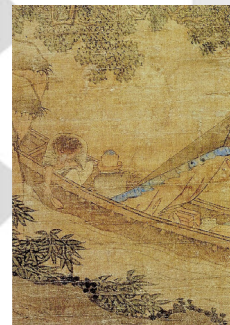


(그림 35) 圍碁圖



(그림 36) 圍碁圖 부분

서 말한 고려도경의 연잎 모양의 뚜껑보다 현실적으로 재현할 완전한 뚜껑의 형태로서 꼭지 주변에 연잎 형태를 두른 것이 특징이다. 이 차완은 銀器로 추정된다.(그림 36) 현재 일본 兵庫 泗川子 컬렉션에 있는 李上佐 작으로 추정되는 秋舸釣魚圖(그림 37)에는 화로 위에 차주자가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시동이 찻물을 뜨고 있으며 다른 주전자는 보이지 않으므로 찻잎을 주자에 넣고 화로 위에 얹어 끓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의 주자는 손잡이와 주구는 보이지 않으나 구연부가 좁은 대신 동체가 넓게 퍼져 직선으로 내려와 바닥이 평평한 형태이다. 이와 같이 배 위에서 차를 끓이는 장면은 간송미술관소장의 李慶胤이 그린 舟遊彈瑟圖(그림 38)에서도 보인다. 역시 화로 위에 차주자가 올려져 있고 차완이 그 옆에 있으며 주자는 손잡이는



(그림 143) 秋舸釣魚圖

110) 박익의 생존연대는 1332년부터 1398년이며, 호는 松隱이고, '杜門洞72賢' 중의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김광철, 『여말선초 사회변동과 박익의 생애』, 위의 책, 2002.

111) 북서쪽 장벽 벽화는 중간 부분이 훼손되어 전체 모습을 파악할 수 없으나 매죽도 옆에 인물상 중 각대를 매고 사모를 쓴 인물 등을 미루어 피장자와 가장 깊은 관계를 가진 자의 표현이라 추정할 수 있다(심봉근, 위의 책, pp34~37). 여기에 차완을 들고 있는 인물이 보이므로 피장자 즉 박익은 평소 차를 애용했음을 추정할 수 있으며, 박익이 죽어 왕에게 부의로 차를 하사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38) 舟遊彈瑟圖



(그림39) 舟遊彈瑟圖 부분

K C I

구연부에서 동체에 걸쳐 연결되어 있으며 주구는 동체의 중간에서 길게 뺀어 나와 끝이 약간 굴곡되어 있다. 동체는 앞에서 본 것과는 달리 둥글며 목이 길고, 차완은 구연부가 비교적 넓은 편이다.(그림 39) 조선시대 그림에는 차완은 거의 보이지 않고 대부분 차주자를 화로 위에 올려 놓고 끓이는 장면이 있으므로



(그림 146) 四季山水圖卷

차주자의 특징을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다. 그 예로 金斗樑과 金德夏가 그린 四季山水圖卷(그림 40)에는 그림 한가운데 차를 끓이고 있는 시동이 보인다. 손잡이와 주구는 보이지 않으나 주자의 동체는 둥글며 뚜껑도 볼록하게 솟아 올라 전체적으로 원형의 모습이다. 호암미술관에 있는 姜世晁과 金弘道가 함께 그린 十老圖像帖 중 張肇平故事圖(그림 41)에는 화면 하단에 차주자가 보이는데 역시 손잡이와 주구는 보이지 않으나 동체는 둥글며 특히 뚜껑에는 참외 문양과 같은 선이 세로로 그어져 있다. 뚜껑의 꼭지 주변에는 작은 구슬모양이 연결되어 있어 주목된다. 탁자 위에는 여러 가지 器物이 보이지만 어떤 용도의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김홍도가 그린 試茗圖(그림 42)에는 차주자와 차완이 함께 보이는데 주자의 손잡이는 동체의 옆에 붙여 있으며 주구는 비교적 짧다. 동체는 원형을 이룬다. 또 차완 2개와 용도를 알 수 없는 그릇들이



(그림 147) 十老圖像帖 중 張肇平故事圖

쟁반 위에 놓여 있는데 차완은 비교적 높이가 높고, 구연부는 넓게 퍼졌으나 외반하지 않았다.



(그림 148) 試茗圖

18세기말에서 19세기초에 걸쳐 활약한 李命基가 그린 草堂讀書圖(그림 43)에서는 차주자가 반만 보이지만 손잡이가 위로 올라간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런 손잡이는 李在寬이 그린 讀書烹茶圖(그림 44)에서도 볼 수 있다.



(그림 149) 讀書烹茶圖

이상과 같이 조선시대의 차와 관계되는 그림은 화로 위에 차주자를 올려놓고 있는 장면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 그 형태는 동체가 주로 원형임을 알 수 있으나 손잡이와 주구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손잡이와 주구가 보이더라도 다양하여 하나의 통일감은 느낄 수가 없



(그림 150) 草堂讀書圖

다. 또 차완은 거의 표현되지 않아서 그 형태를 잘 파악할 수 없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차주자를 꿰이는 장면으로 미루어 조선시대에는 전차가 성행했음을 짐작할 수 있고, 따라서 구연부가 넓게 벌어진 말차용의 차완이 아니라 구연부가 좁고 동체의 높이가 비교적 높은 작은 차완이 성행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V. 고려시대 차완과 차주자의 분류 및 그 특징

지금까지 중국, 한국 회화에서 나타나는 차도구 중 주로 차완과 차주자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시기에 따라 차완, 차주자의 형태는 변하며 이는 특히 마시는 차의 종류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함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는 서경이 『고려도경』에서 말한 것과 같이 모든 기물들은 중국의 것을 모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 중국에서는 어떤 차를 마셨으며 아울러 어떤 차도구를 이용하였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중국과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차완과 차주자를 유추해 보고자 한다.

중국에서의 차의 생산 및 음다는 한대부터 시작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당대 이전에는 어떤 차를 어떻게 끓이고, 어떤 도구를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정확히 아는 바가 없다. 이후, 당대에 들어서면 육우의 『茶經』에 의해 보다 구체적인 차풍습을 알 수 있다. 즉 당시대의 차는 鼎形의 풍로에 삼죽구를 걸고 그 안에 가루로 만든 차를 넣어 끓여 마신다고 한다. 또한 차완은 월주의 청자가 최상품이라 하고, 형주의 백자와 우열을 가린다고 하는데 이때 좋은 차완은 차완에 담긴 차의 색으로 정한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 차풍습과 아울러 차완 즉 도자기의 생산도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당대에는 뜨거운 차를 주로 마셨기 때문에 현존하는 차완도 거의

잔탁의 형태를 갖춘 것이다. 이러한 잔탁은 앞서 본 무녕왕릉 출토의 은제잔탁(그림 2)과 상통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송대에 들어서면 음다의 풍습도 당대와 다르게 변하는데 차를 갈아서 분말로 만들어 구연부가 넓고 저부가 원형으로 좁은 완에 넣고 뜨거운 물을 세차게 부어 차가 완 전체에 퍼지게 해서 마시게 된다. 이러한 음다는 북송 후기부터 남송 전반에 성행하게 되는데 여기에 맞춰 차완도 구연부가 넓은 말차용 완의 제작으로 그 주류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완의 형태는 역시 앞의 장굉필묘벽화(그림 3, 4)에 보이는 차완이 대표적 형태이다. 즉 시동이 차를 깔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말차를 끓이기 위한 장면임을 알 수 있고, 거기에 나온 차완은 구연이 넓고 저부의 폭이 좁으며, 차주자는 동체와 목이 긴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형태의 차도구는 말차를 위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말차용 완임에도 불구하고 구연이 외반되면서 저부와 구연의 측면이 사선이 아니라 곡선을 이루는 차완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말차의 유행에 의한 말차용 차완의 다양성이라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구연이 넓고 저부가 매우 좁은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 부분적으로 구연이 외반하거나 저부의 굽이 높아지며 문양이 다양하게 시문되는 등의 변형이 나타나는 것이 송대 차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차주자는 晚唐에서 五代 더욱이 송대에 걸쳐서는 주구가 어깨에서 시작되는 주자가 성행한다. 즉, 어깨에서 몸통은 각이 져서 이어지고, 주구가 길게 변화된다. 이것은 차를 붓는 기능을 보다 실용적으로 하기 위해 바뀌진 형태의 결과인 동시에 완의 형태 즉 차를 마시는 방법의 변화에 의한 결과이다. 특히, 주구가 어깨에 붙은 이유는 차주자를 그대로 붙여 엮거나 뜨거운 차를 금방 식지 않게 하기 위해 승반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역시 육우의 『다경』에 의하면 邢州의 백자가 차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기사가 보이며, 당시 차는 주로 술에 넣어 끓인 후 주전자에 저장해 두는 습관이 있었다고 하므로 당대의 차주자는 백자에 술을 담은 주전자와 거의 모양이 흡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로는 현재 일본 五島미술관 소장 晚唐代의 백자주자를 들 수 있다. 이 주자는 목이 길고 몸통은 어깨부분이 넓은 매형과 비슷하다. 구연부가 넓게 퍼져 몸통의 최대폭과 거의 일치하며 그 끝부분은 밖으로 외반하고 있다. 주구는 짧으며 몸통의 어깨에서부터 뺀어 나갔다. 손잡이는 목과 어깨선의 경계에서 시작하여 어깨 바로 아래에 붙어 있다. 이러한 형태는 앞서 본 장투공묘벽화(그림 8)와 나한도(그림 10, 11)의 것과 유사하다. 이렇게 만당에는 백자 위주의 주구가 비교적 짧고 동체는 어깨부분이 부푼

매형을 이루는 차주자가 많은데 이보다 시기가 떨어지는 당 말기부터는 주구가 길어지고 동체는 긴 타원형에 가까워진다. 또한 목은 길며 그 폭은 전시기의 것보다 좁아지고 주구는 동체의 가장 부푼 부분에 부착되어 뺀어 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의 차주자는 송대에 가장 성행한다. 한편 송대에는 주로 말차가 성행하였으나 일부에서는 전차도 음용되었음을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전차용 차주자는 역시 앞의 동립도(그림 21, 22)와 품차도(그림 24, 25)에서와 같이 높이가 낮고, 동체는 구형이며 주구가 짧은 것이 그 대표적인 형태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5)  
청자양각모란당초문완



(그림 46)  
청자양각죽절음각  
초화문백퇴점주전자

이와 같이 차도구는 말차용, 전차용에 의해 그 형태가 확연히 구분되는데 구연부가 넓게 퍼진 완은 말차와 관계가 깊으며 잔의 형태로서 구연의 폭이 좁고, 동체가 작은 것은 전차용 차완으로 추정된다.

말차는 찻잎을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구연부가 넓은 완에 넣고 주전자에 담긴 뜨거운 물을 직접 완에 부어 마시는 것으로 차완에 넓게 찻잎가루가 퍼지면서 차가 잘 우려나도록 하기 위해 이와 같이 구연이 넓은 완으로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아울러 주전자는 동체부와 목이 길고, 특히 주구가 긴 것이 말차용 주전자로 추정되는데 이는 되도록이면 차완과 멀리 떨어져서 뜨거운 물을 완에 직접 부어 차가 전반적으로 잘 섞이면서 우려나도록 고안된 형태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형태의 차완과 차주자는 고려시대의 도자기 중 청자양각모란당초문완<sup>112)</sup>(그림 45) 또는 청자상감운문완<sup>113)</sup>과 청자양각죽절·음각초화문주전자<sup>114)</sup>(그림 46), 청자퇴화연당초문주전자<sup>115)</sup> 등이 있다.

한편, 전차는 뜨거운 물이 담긴 주전자에 직접 찻잎을 넣어 주전자에서 차를 우려내 완에 부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미 완성된 차를 차완에 부어 마시므로 차완 그릇

112)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 중이며, 고려시대 전반인 12세기 작으로 추정되는 작품이다. 높이는 5.9cm, 입지름은 15.5cm이다.

113) 고려 12세기 작으로 해동고도자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다. 높이 7.0cm, 입지름 16.6cm이다.

114) 전체 높이가 30.2cm이고, 주전자 높이는 22.5cm, 입지름은 4.9cm이며 현재 호암미술관에 소장 중인 12세기 고려시대 주전자이다.

115) 고려 도자기 중 가장 전성기인 12세기 작이며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 중이다. 높이 18.5cm, 입지름 2.6cm, 밑지름 9.5cm이다.

이 말차용 차완처럼 클 필요는 없다. 따라서 작은 잔 형태가 알맞으며 뜨거운 잔을 받치는 탁이 필요로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전차에 맞는 주전자는 찻잎이 주자 안에서 넓게 퍼지면서 서서히 우려나게 해야 하는데 이르기 위해서는 몸통이 구형으로 둥근 형태가 맞다. 그러므로 전차용 차주자를 구형 주전자로 보아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형태는 앞서 본 중국의 東林圖(그림 21, 22)와 조선시대의 舟遊彈瑟圖(그림 38, 39)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실제로 고려시대의 전차용 차완과 주전자로 추정되는 대표적인 작품은 청자음각초화문잔탁<sup>116)</sup>(그림 47)과 청자퇴화음각초화문주전자<sup>117)</sup>(그림 48)를 들 수 있다.



(그림47)  
청자음각초화문잔탁



(그림48)  
청자퇴화음각초화문주전자

이상과 같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말차용과 전차용 차완과 차주자의 셋트 관계를 상징할 수 있다. 이는 말차용은 구연이 넓고, 저부가 좁은 완에 주구와 목, 동체가 긴 주자가 한 셋트이고, 전차용은 구연이 좁은 잔 형태의 완과 전체적으로 크기가 낮고, 주구와 목이 짧으며 동체가 구형을 이루는 것이 전차용 차완 차주자로서 셋트 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 VI. 맺음말

이상과 같이 고려시대 차도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고려시대의 차완과 차주자에 대한 정확한 형태 파악이 어려운 실정에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로 중국, 고려, 조선시대의 회화에서 나타나는 차도구를 통하여 현존하는 도자기와의 형태를 비교하여 차도구를 유추하였다. 아울러 이를 통해 고려시대 차완과 차주자로서의 형태 특징을 결정짓고자 하였다.

116)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12세기 전반작이다. 잔 높이는 4.8cm, 탁 높이 4.4cm이다.

117) 고려 12세기 작으로 추정되며, 높이 14.9cm, 밑지름 10.2cm이다. 현재 호림박물관에 소장 중이다.

그림에서는 비록 형태파악의 한계가 없지는 않았으나 당시의 차풍습을 그대로 재현한 장면에서 나타나는 차도구이므로 그 어떤 기록보다는 명확하게 차도구임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회화를 통해서 살펴본 차도구는 역시 당시의 차문화를 반영하였던 것으로 주로 이른 시기에는 전차를 음용하다가 송대 즉 고려시대에 접어들면 말차를 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 맞춰 고려시대 차완과 차주자도 말차용과 전차용으로 그 셋트 관계로 그 형태를 구분해 보았다. 그 결과 말차용 차완은 구연이 넓고, 완의 측면이 직선을 이루는 형태로 이와 아울러 함께 사용되는 차주자는 목과 주구, 동체부가 긴 형태임을 추정할 수 있었고, 반대로 전차용의 차완은 잔형태로서 동체부가 작고, 차주자는 목이 짧고 동체부가 거의 구형에 가까운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은 고려시대 차문화에 대한 연구 중의 일부로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고려시대 차완과 차주자의 구분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들의 시기적 변천과정 및 그 양식적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과제는 다음 기회에 미루어 두고자 한다.

#### <그림 목록>

- (그림1) 토기목서문완 통일신라시대(8세기) 높이 6.7cm 입지름 16.8cm 국립 경주박물관 소장  
경주 안압지 출토
- (그림2) 동탁은잔 삼국시대(6세기) 전체높이 15cm 국립공주박물관 소장 무령왕릉 출토
- (그림3) 張匡正墓壁畫 요(1093년) 前室東壁의 차완
- (그림4) 張匡正墓壁畫 요(1093년) 前室東壁의 차주자
- (그림5) 張文藻墓壁畫 요(1093년) 前室東壁
- (그림6) 張世卿墓壁畫 요(1116년) 后室西壁
- (그림7) 張世古墓壁畫 요(1117년) 后室西南壁
- (그림8) 張恭透墓壁畫 요(1117년) 墓室西南壁
- (그림9) 蕭翼賺蘭亭圖卷 傳閻立本筆 북송(11세기) 1권 絹本著色 대만 故宮 박물관 소장
- (그림10) 羅漢圖 남송(12~13세기) 2폭중 1폭 絹本著色 개인 소장
- (그림11) 羅漢圖 부분 차주자
- (그림12) 羅漢圖 부분 차완
- (그림13) 文會圖 徽宗筆 북송(12세기) 1폭 絹本著色 대만 故宮박물관 소장
- (그림14) 五百羅漢圖 周季常·林庭珪 外筆 남송(1175~77년) 현존82폭 중 1폭 絹本著色 가로 109.5×세로52.3cm 京都 大德寺 소장
- (그림15) 唐十八學士圖 명(14~15세기) 4폭 중 1폭 絹本著色 대만 故宮박물관 소장
- (그림16) 道童圖 元(1336년) 馮道眞王青墓의 東壁畫
- (그림17) 陸羽烹茶圖 부분

- (그림18) 盧仝烹茶圖 傳錢選筆 명(14~15세기) 1폭 紙本著色 대만 故宮박물관 소장
- (그림19) 盧仝烹茶圖 부분
- (그림20) 煮茶圖卷 王問筆 명(16세기) 1권 紙本墨畫 대만故宮박물관 소장
- (그림21) 東林圖 仇英筆 명(15~16세기) 1권 絹本著色 독일 베를린동양미술관 소장
- (그림22) 東林圖 部分
- (그림23) 隱居十六觀 중 譜泉 陳洪綬筆 명(17세기) 16圖 중 1圖 紙本墨畫 대만 故宮 박물관 소장
- (그림24) 品茶圖 周臣筆 명(15~16세기) 1권 絹本著色 미국 미시건대학부속 미술관 소장
- (그림25) 品茶圖 部分
- (그림26) 挑耳圖 명 1폭 絹本著色 가로31.5×세로42.3cm 미국 후리어미술관 소장
- (그림27) 挑耳圖 部分
- (그림28) 坐聽松風圖 李士達筆 명(16세기말~17세기초) 1폭 絹本著色 대만 故宮박물관 소장
- (그림29) 彌勒下生經變相圖 고려(1350년) 絹本彩色 가로178.0×세로90.3cm 일본 親王院 소장
- (그림30) 彌勒下生經變相圖 部分
- (그림31) 彌勒下生經變相圖 고려(14세기 전반) 絹本彩色 가로171.8×세로 92.1cm 일본 知恩院 소장
- (그림32) 彌勒下生經變相圖 部分
- (그림33) 千手千眼觀音圖 고려(14세기 중반) 絹本彩色 가로93.8×세로51.2cm 호암미술관 소장
- (그림34) 朴翊墓壁畫 조선(1420년) 북서장벽
- (그림35) 囲碁圖 傳恭愍王筆 고려말기~조선전기(14~15세기) 1폭 絹本著色 가로 137.2×세로65.0cm 兵庫泗川子콜렉션 소장
- (그림36) 囲碁圖 部分
- (그림37) 秋舸釣魚圖 傳李上佐筆 조선전기(15~16세기) 2폭 중 1폭 絹本著色 가로 155.0×세로86.0cm 兵庫泗川子콜렉션 소장
- (그림38) 舟遊彈瑟圖 李慶胤筆 조선 1폭 紙本淡彩 간송미술관 소장
- (그림39) 舟遊彈瑟圖 部分
- (그림40) 四季山水圖卷 金斗樑·金德夏筆 조선후기(1744년) 2권 중 1권 絹本墨畫淡彩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그림41) 十老圖像帖 중 張肇平故事圖 姜世晁·金弘道筆 조선후기(1790년) 紙本墨畫 호암미술관 소장
- (그림42) 試茗圖 金弘道筆 조선후기(18세기) 1폭 紙本墨畫 간송미술관 소장
- (그림43) 草堂讀書圖 李命基筆 조선후기(18세기말~19세기초) 1폭 紙本著色 호암미술관 소장
- (그림44) 讀書烹茶圖 李在寬筆 조선 1폭 紙本著色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그림45) 청자양각모란당초문완 고려(12세기 전반) 높이 5.9cm 입지름 15.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그림46) 청자음각초화문잔탁 고려(12세기 전반) 잔 높이 4.8cm 탁 높이 4.4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그림47) 청자양각죽절음각초화문백퇴점주전자 고려(12세기) 전체 높이 30.5cm, 주전자 높이 22.5cm, 입지름 4.9cm 호암미술관 소장
- (그림48) 청자퇴화음각초화문주전자 고려(12세기) 높이 14.9cm, 밑지름 10.2cm 호림박물관 소장